

작은 학교 밥 걱정... '운반 급식' 언제까지

64개교 인근 학교서 조리 운반 학부모들 "차별" "찬밥" 불만 조리시설 설치 수백억 필요 전남교육청 예산 등 해법 고심

학생 수 40명 안팎 전남소규모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전남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학교는 급식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지은 밥과 반찬을 가져와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농·어촌 작은학교 차별', '왜 우리아이 찬밥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바람대로 조리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면 되지만 언제 학교가 문 닫을지 모르는 우려에 교육당국은 예산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

육감의 결단 문제다. 경제논리에 휩싸여 예산투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되레 경제적으로 전남에 이익이 되고 작은학교를 살리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4월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827개 학교 가운데 조리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음식을 조리한 음식으로 급식하는 이른바 '운반 급식' 학교는 64개교(분교 15곳 포함)다.

이들 학교는 짧게는 2km, 멀게는 15km 떨어진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조리원 개인 승용차, 택시, 외부인 승용차 등으로 가져와 학생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냉장탑차를 이용해 음식을 옮기면 그나마 낫겠지만 운송단가와 시간이 맞지 않아 일반 차량으로 옮기는 탓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식중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교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첫날 찾은 학생수 42명

의 무안 정계남초교가 대표적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2일 이 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황을 살피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냉장탑차라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냉장탑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 음식을 옮기는 방안 모두 운송업체 선정이 여의치 않거나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운반급식 학교 전체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의 경우, 시설 설치 및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인력 충원에 첫 해에만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매년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문량이 적어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할 것

이란 점도 난제로 지목됐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적어 언제 통합될지 모르는 학교들에 수백억을 쏟아붓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경제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있다.

냉장탑차를 구입해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옮기는 방안도 1일 1시간 운영으로, 차량 구매 및 인력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육계 인사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영양사 등을 채용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시설이 좋아지면 학교 경쟁력이 높아지고 학부모 불만은 줄고 전학오는 학생도 생겨나 결국 작은학교를 살리는데 보탬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예산 부담이 크다면 전남도와 나눠서 감당하는 방안도 있다. 결국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입시전략에 쏠린 눈 6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 및 수시지원전략 학생 학부모 설명회가 4일 광주시 서구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형식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대검 상반기 우수부장 5명 선정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신형식(사진) 목포지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사진)과 이정봉 대구지청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청 진주지청 형사2부장, 허정수 수원지청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청 천안지청 형사3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형식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명 숨지고 농경지 6869ha·주택 61동 침수

광주·전남 태풍·호우 피해 3건, 전남 11개 시군에서 11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집중호우로 주택 1동이 반파됐으며 61동이 침수피해를 봤다. 농경지는 8개 시군에서 6869ha가 물에 잠겼고, 무안에서는 양계장 침수로 병아리 6000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보성에서는 하천 제방 40개소 11.15km와 교량 3개소가 유실됐고, 모원저수지 제방 10m가 붕괴해 주변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병원 구성원 90% "병원 신축 찬성"

입지 놓고는 의견 엇갈려 전남대병원 구성원들은 최근 추진 중인 병원 신축 안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부지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신축하는지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4월 병원과 의과대학 의료진, 직원, 동문 등을 대상으로 신축 안에 대한 설문조사했다. 신축을 놓고는 구성원 90%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982년 건립된 병원 건물이 노후화로 매년 수십억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실, 편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원(광주 동구 학동)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 의과대학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과 새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50 달 뜨는 시간 11:30

기습 소나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리고한때비	23/30	보성	구름많음	22/27
목포	구름많음	23/28	순천	구름많음	24/28
여수	구름많음	23/25	영광	구름많음	22/30
나주	흐리고한때비	23/30	진도	구름많음	22/28
완도	구름많음	23/27	전주	차차흐려져비	23/30
구례	흐리고한때비	23/29	군산	구름많음	22/28
강진	구름많음	23/28	남원	차차흐려져비	22/30
해남	구름많음	22/28	흑산도	구름많음	20/26
장성	흐리고한때비	22/30			

◇바다 날씨

해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생황지수

주요 지수: 식중독, 매우높음, 지의선, 좋음

◇물때

목적	간조	만조
	11:51, 23:56	06:28, 18:46
여수	07:25, 19:20	01:03, 13:31

◇주간 날씨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	☁	☁	☁	☁	☁	☁
기온	22/30	22/29	23/29	23/29	22/30	23/30	23/30

광주경찰 인권보호 다양한 시책 펼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인권위 위원 11명으로 늘려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확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해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등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중 여성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위원도 참여시켰다. 인권위는 앞으로 광주경찰이 추진하는 제도,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

사 실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중 내용을 메모하고 변호인 조인·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의견 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여성 상대 범죄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여성수사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 공간을 확보하고, 조사 중 피해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 각 경찰서 형사과에 3~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하고, 유관단체와 연계해 자살자 가족, 생계형 피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실에는 전문 심리상담관 2명을 배치, 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운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광주경찰이 전국을 대표하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회산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